

## 12/30(수) 사사기 묵상 36

### 사사기 11:1-40

사사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 딸을 인신제사로 바친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사사로서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히 11: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그는 과연 어떤 사사였을까요?

#### 큰 용사 입다

성경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사실 상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찍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다는 “뚝” 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랑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입다는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입다는 사실상 사사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뛰어난 전사였고 지도력이 있어 그 수하에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암몬 족속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백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암몬의 군사적 위협은 점차 더 심각 해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길르앗 지파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무능함을 해결하기 위해 입다에게 찾아가 그들의 군대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비록 입다는 불우한 어린시절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민족의 큰 용사인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지도자로서 먼저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입다는 특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논하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서 암몬의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27절하,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입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입다는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급박했던 군사적 위기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입다의 서원

전쟁은 끝났지만 입다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으로 인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입다가 했던 서원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30-31절).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인신 제사는 당시 수리아 지방에 만연해 있던 풍습으로 이스라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삿 10:6절,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입다는 전쟁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와 자신을 첫 번째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했던 서원 때문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딸이 요구한대로 두 달간의 시간을 주고 나서 그의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39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성경을 보면 서원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시 116:14, "여호와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러한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입다의 서원과 이행은 정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로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거짓 맹세란? 잘못된 서원을 기록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 그의 서원은 거짓 맹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은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서원이 아니라 제삼자에 관한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 삼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원에 대해 몇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입다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서원을 하는 것조차도 삼가할 것을 말씀합니다(약 5:12상,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주님과 같이 항상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앙 생활에 있어 결단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또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사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2. 올 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3.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기쁨<인도네시아>, 이드림<카자흐스탄>, 이바나바<E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